

開城王氏大同譜 序文

근대종친회 임원 정부요로 보호 복원 요청 요청 홍릉 고릉 국가문화재 석릉 가릉 곤릉 지방문화재
近代宗親會 任員들이 政府要路에 保護와 復元을 要請하여 洪陵과 高陵은 國家文化財로 碩陵 嘉陵 坤陵은 地方文化財로

지정 금년도 국고보조금 당해군 영달 전면보수 계획 인출 알고 있다 그리고 교서관공이하 선대墓
指定받고 今年度 國庫補助金이 當該郡으로 令達되어 全面補修할 計劃인줄 알고 있다 그리고 校書監公以下 先代墓

소 기성역화 되어있으나 앞으로 도 수호 더욱 힘써야 할줄 믿는다 금차보사 북한지역 있는 종족 수록
所는 既聖域化 되어있으나 앞으로 도 守護에 더욱 힘써야 할줄 믿는다 今次譜事에 있어 北韓地域에 있는 宗族이 收錄되

지 못함은 유감 일이나 불원남북 통일 기시 전반기록 기약 刊行된 대동譜는 신구 겸하
지 못함은 遺憾된 일이나 不遠南北이 統一되면 其時에 全般收錄될것을 期約하는바이다 刊行된 大同譜는 新舊를 兼하

여 알기쉽게 편제 되었음으로 누구나 다 읽을수 있을것이니 慶幸한일이다 금갑인보발간 수보위원 제위 노고
여 알기쉽게 編製되었음으로 누구나 다 읽을수 있을것이니 慶幸한일이다 今甲寅譜發刊에 있어 修譜委員 諸位의 勞苦와

각문중대표 물심양면 적극협조 하여주신데 對하여 심사 표 아올려 우리 開城王氏는 三千里 檣域 어디서
各門中代表들의 物心兩面으로 積極協助 하여주신데 對하여 深謝를 表하며 아올려 우리 開城王氏는 三千里 檣域 어디서

거주 항상 성조 혈통 손상 없도록 금지 矜持를가지고 화목단합 상부상조 정신 발로 發露하여 他에 模範
居住하는지 恒常 聖祖의 血統을 損傷됨이 없도록 矜持를가지고 和睦團合하고 相扶相助의 精神을 發露하여 他에 模範

이 되어줄것을 간곡 懇曲히 바라면서 서문 序文에 가름하는바이다 謹序
이 되어줄것을 懇曲히 바라면서 序文에 가름하는바이다 謹序

一九七四年 갑寅 仲秋 후손 오종 근서
一九七四年 甲寅 仲秋 後孫 午鍾 謹序

癸許 甲寅大同譜 頌文 (金甲寅 金仲秋 金午鍾)

平正體 (西漢一六一) 金許以翁 十四年 金仲秋 金午鍾 大同譜를 癸許 甲寅大同譜 頌文 (金甲寅 金仲秋 金午鍾)

序文

고려조 왕자왕손 백절불굴 선조님 계계승승 족보 발간 경행
高麗朝의 王子王孫들이 百折不屈하고 先祖任들의 열을 되새기며 繼繼承承하여 族譜에 發刊을 거듭하니 慶幸한일이며

美舉가 아니리오 슬프다 우리 개성씨 덕 삼국 통일 하시고 국위를 만방에 떨치신 태조님 후예 포악무
美舉가 아니리오 슬프다 우리 開城王氏는 德으로 三國을 統一 하시고 國威를 萬邦에 떨치신 太祖任의 後裔로서 暴惡無

도한 여말 역신배 흉모 만고역사상 전무후무 멸문지화 당 당 비통 회상 앓을 수 있으
道한 麗末 逆臣輩의 凶謀로 萬古歷史上 前無後無한 滅門之禍를 當하였으니 그 悲痛함을 回想치 앓을 수 있으

리요 천신만고 무시무시한 호혈 벼어나 화 면 선조 예손 다시 번성 전국 경향각지
리요 千辛萬苦로 무시무시한 虎穴을 벗어나 禍를 면하진 先祖의 裔孫들이 다시 繁盛하여 全國 京鄕各地

에 기천호 산거 이는 다 어지신 할아버지의 음덕 소치 족보 의의 또한 타대성 비교
에 幾千戶가 散居하고있으니 이는 다 어지신 할아버지의 蔭德에 所致일것이며 族譜하는意義가 또한 他大姓과 比較할

바 못된다 그러나 유감스러운것은 개성 중심 북북 일가들이 이번 대동보 참여 못한점이나 조
바 못된다 그러나 유감스러운것은 開城을 中心으로 北嶺 땅의 많은 일가들이 이번 大同譜에 參與치 못한點이나 早

속국토 통일 기원 족보 고려시대 부더 시작 이조 대보 서기
속 國土가 統一되기를 祈願할뿐이다 族譜는 高麗時代 부터 시작 이조 대보 서기 西紀一七九八年

무오 정종 시보이후 一八五〇년 경술보 철종원년 一八八一年 신사보 고종 一九一八年 무오보 단기
戊午 (正宗二十二年) 始譜以後로 一八五〇年 庚戌譜 (哲宗元年) 一八八一年 辛巳譜 (高宗一八年) 一九一八年 戊午譜 (檀紀

四二五一年) 一九六一年 신축보 단기 十四年만에 여섯번째로 금 갑인대동보 중간 재발간
四二五一年) 一九六一年 辛丑譜 (檀紀四二九四年) 에 이어 十四年만에 여섯번째로 金 甲寅大同譜를 重刊하게 되었다 早

기중간 원인 전보 누락 일가들이 많으므로 지난해부터 족보발간 논의 중 금춘 중친회중역
期重刊을 하게된 原因은 前譜에 漏落된 일가들이 많으므로 去年부터 族譜發刊이 論議되어 오는데 金 春에 宗親會重役

들이 전국 순회 각지방 문중 의사 찬동 받고 각문중 대표자대회 개최 만장일치 중간의
들이 全國을 巡廻하여 各地方 門中에 意思를 들어 讚同을 받고 各門中 代表者大會를 開催하여 滿場一致로 重刊의

가결 가결 보았다 그러나 막상 보역 착수 당초 예상 전연 사정 달라 저서 경제적고충 기타
可決을 보았다 그러나 막상 譜役을 着手하고 보니 當初 豫想했든바와는 全然 事情이 달라 저서 經濟的苦衷과 其他

開城王氏大同譜 序文

여러가지 애로 隘路가 많았음을 다시 상기 想起하지 않을수없다 불초 不肖 친학비제 淺學非才로 대역 大役에 일익 一翼을 담당 擔當하였으나 점 點이 많아

자책 금 禁치못하는바이며 보역 譜役은 참으로 쉽지않다는것을 절실 切實히 통감 痛感하게 되었다 회고 回顧하던대 선인 先人들께서는 문명 文明에 이기 利器

를 이용 利用치못하던 시기 時期에도 죽장 竹杖芒鞋로 개나리 개나리붓짐을 삼천리 三千里 방방곡곡 坊坊谷谷을 도보 徒步로 다니시며 일가들을 찾아

누락 거의 漏落이 거의 없다싶이 죽보 族譜를 계속 繼續하셔서 후손 後孫들에게 傳해 傳해주시었으니 피눈물 피눈물이나도록 고마움 고마울뿐이며 고개 高개를속여 추모 追慕와 감 感

사 대범 謝를 들이지 않을수없다 의의 大凡 族譜하는 意義는 계보 系譜만을 이어 이어가는것이 아니라 선조 先祖들의 유적 遺蹟과 분묘 墳墓를 각자 各自가 자주

정찰 승모 省察하여 승모 崇慕保護하여야 할것이며 후손 後孫들에게 위선 爲先할줄아는 정신 精神을 익히고 익히고 길러야 길러야하며 종친 宗親間에는 동근 同根同祖의 혈연 血緣을

소중 친목 所重히 여기고 도모 親睦을 圖謀하는데 목적 目的이있는것이다 씨 우리王氏는 성조 聖祖의 혈통 血統을 이어 이어받은 영광 榮光된과 공지 矜持로서 더욱 더 위 爲

선심 협조 先心과 協力을 선조 先祖님들의 유훈 遺訓을 지버리 止버리지 말도록 노력 너나 없이 노력 努力하여야 할줄민는다 금차 今次譜役은 만부 萬不得已한 사 事

정 단기 情으로 短期間內에 발간 發刊을 서둘러 역부 力不足인탓으로 미비 未備된部分과 오자 誤字가 있음을 중구 悚懼하게 여기며 종친 宗親諸位에 관용 寬容을바

라마지않는다 특 特히 보역 譜役全般에 걸쳐 족질 族侄 제성 濟晟君의 노고 勞苦가 지대 至大하였음을 중친 宗親들과 더불어 치하 致賀하는바이며 끝으로 끝으로

금차보역 노고 今次譜役에 수보 修譜委員및 수단 收單有司 들의 적극 積極的인 협조 協助와 전국 全國宗親諸位의 성원 聲援에 힘입어 대동 大同譜의 완성 完成을

보게 되었음을 감개 感慨無量하게 생각 生覺하면서 앞으로 천추 千秋萬代토록 속간 續刊이 계속 繼續되기를 바라마지않는바이다

서기 西紀一九七四年甲寅九月晦日

裔孫

在淳(在烈)

謹序

開城王氏大同譜 序文

대개 사람이 자기조상 연원 원천 업적 淵源과 業績을 밝히어 그 자손 子孫들에게 傳함은 族譜만 族譜만 합이 없고 三綱五倫을 美風을	이름도 族譜만 합이 없으니 譜牒이 譜牒이 貴重함을 可히 알수 있을 것이다 先人들께서 序文과 跋文을 通하여 昭詳히 記述	하시었음으로 다시 再論할 再論할 必要가 없으며 今般修譜를 서둘러 重刊하게 된것은 分과 分과 누보 宗人들이 많아	거 一월 京郷各地 門中代表者 會議를 열어 大同譜 續刊이 論議되어 여러 일가들에게 通文하니 遠近의 宗族이 다	協助하여 短時日內에 收單이 마감되고 印刷를 着手한지 數個月만에 大役의 完成을 보게되니 實로 古今無雙한 盛事	이며 先祖의 遺恩이 永世無窮하시여 加護하여 주신 德分인줄 生覺한다 그러나 다만 遺憾된 바는 國土의 分斷으로	北韓의 僉宗들과 合譜치 못함 이로다 不肖 今次修譜의 末席에 參與하여 誠과 熱을 다하였으나 未備한 點이 많사오	며 特히 今次修譜에는 舊辛巳戊午 辛丑譜를 詳考對照하여 照穆이 바뀐 部分은 訂正하고 其他 各部門에 걸쳐 考證	顯註하고 바로잡는데 重疊함과 同時에 前序文과 事蹟은 辛丑譜 보시 상세 번역 되었음으로 그대로 存置하였다 또는	國史와 野史를 蒐集 參考하여 高麗歷代要覽 七十二賢 및 忠臣錄을 末尾에 附記하였으며 其他 年代對照表 住所錄을	重點의 으로 收錄하였다 製本課程에 있어 太祖任의 肖像을 原色寫眞으로 모시여 卷首에 奉安하였으니 後孫된者는 敬	虔한 마음으로 追仰欽慕 할것이며 各陵所와 先代墓所도 可能한곳은 原色寫眞으로 奉安하였으니 房안에서 先祖에 祀	堂과 陵는 墓所를 省察할수 있을것이니 慶幸한일이며 今次譜役은 族叔 재순씨 圃志로 隘路와 難關을 克服
---	---	--	--	---	--	---	--	---	--	---	--	--

開城王氏大同譜 序文

속절 혼연일체 하여 渾然一體가 되어 노력 노력한 결과 華麗한 양장 二卷의 대동보 완성 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

眞實로 조상 추모 追慕하고 혈연 중 여기는 誠意가 있다면 可及的 譜牒을 집집마다 모시어 자주 상고속독 하

면 위선심 일가간 和睦단결 마음이 생기 지 않겠는가 우리大同譜에 수록 모든 일가들은 더욱 이에 힘쓰

기 바라는바이다

서기 년갑인 월 일 예손 제성 근서
西紀一九七四年甲寅九月 日 裔孫 濟晟 謹序

續刊辛丑世譜序文

저가 외람히 중앙총친회장의 중책을 무릅쓰고 족보서문을 쓰려하니 송구한마음 금할길이 없읍니다 저로써 족보하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첫째 선대 할아버지를 숭배 공경하고 전국에 산재한 일가들의 항렬을 알고 모든 친

족 끼리 화목을 도모하며 서로 양보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며 친목을 꾀하는데 있다고 볼니다 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姓氏와 다른점은 고려대조 대왕의 후손임으로 우리 선대 할아버지들의 임금으로 계실때에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고 후세에 龜鑑이된 숭의전에 配享하는 十六功臣 뿐만아니라 그外에 崔忠 吳延寵 禹倬 文益漸 崔瑩갈

은 어른들의 그 공로를 길이 추모 追慕하고 그 어른들의 후손에 대하여 항상 경의를 표하고 친목을 도모 할것입니다

開城王氏大同譜 序文

우리들의 족보는 우리집 족보만 될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사 이려한 점을 생각해 볼때 더욱 그 뜻이 중대

것을 깨닫게 될것입니다 우리 일가들은 더욱 학문을 힘쓰고 천지신명 감사할줄 알며 옛적 聖人의 말씀을 존중

승배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夫婦間에 잘 지내며 나라에 충성하고 사회사람들에게 공경을 표하며

항상 자기문을 낮추고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 聖子神孫의 후손된 체면을 손상시켜서는 않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 지금 우리나라 남북 양단 兩斷된 관계로 全國일가들을 전부 收錄하지 못한것을 유감으로 생각할뿐 아니라 이번

에 南韓에있는 일가로서 將後 남북 통일되면 大譜에 加入하겠다고 주장하여 累次 勸告함에도 不拘하고 一、二個

빠진것을 더욱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宜寧派 철호씨 哲鎬氏가 족보 純漢文을 번역하여 알기쉽도록 하였으니

남녀노소 莫論하고 꼭 한번씩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옛날 李朝時代에 우리 족보에 바른말을 쓰지못하게 하였던

것을 오늘날 이것을 바로써서 黑白을 밝히었으니 이點도 양해할것이며 純漢文과 번역문을 兩存시켜 漢文을 아는자는

漢文을 읽게하고 漢文을 모르는者는 번역문을 읽도록 하였으니 他姓의 족보에 比하여 便利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들것은 고려대조 臨終時 열가지 훈계중 열째번 훈계에 말씀 하시기를 나라를 위하고 가정을 위해서는 항상

근심 없을때를 더욱 경계하라 하시고 또 널리 經傳과 歷史를 보아서 옛적일을 거울삼아 이제를 경계하라 하시었고

또 말씀 하시되 옛적 中國의 周나라 周公은 큰 聖人이로되 周나라 임금 成王께 아뢰는 글에 항상 便한것을 일삼

국사

천지신명

성인

부부간

성자신손

전국

수록

대보

주장

누차

불구

의령파

철호씨

순한문

이조시대

순한문

양존

한문

자

흑백

점

타성

비

편리

임종시

경전

역사

중국

주공

성인

주

성왕

편

開城王氏大同譜 序文

지말고 더욱 부지런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었으니 후손들은 이글을 출입 出入하는 문앞에 걸어두고 출입 出入할때마다 이글을

보고 실천하라 하시었다 장차 우리 후손들도 대조님의 하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여 실천에 옮기도록 부탁

하는 바입니다

서기一九六一年 년 신축 양 辛丑 陽 八月 하순 下旬에 후손 만수 萬守 삼가 서문 하나이다

대범 족보 族譜하는 이유 理由를 말하면 지나간 선인 先人들 누차 累次 말씀하신것과 같이 일가들의 이름과 세계 世系와 파별 派別을 알기보

다 목적 目的이 친목을 도모하고 융화협동 融和協同하여 자손만대 子孫萬代에 이르기까지 정의 情誼를 끊지않고 전국 全國의 종족 宗族이 한집안에서 모여사

는것같이 굳게 결속 結束하는데 있는것인즉 이러한 원리 原理를 알지못하고 족보 族譜를 편집해 보았댔자 상투적 常套的으로 선인 先人の 자취를

밝아 편집 編輯의 형식을 취 取한것뿐이고 하등 何等의 효과 效果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이러한 경박 輕薄한 이념 理念을 가질진대 각 各

자가 파보 派譜만 하여도 만족할 것이요 또 족보 族譜나 파보 派譜를 할 필요 必要조차 느끼지 않는바이다 철호 哲鎬가 비재박덕 非才薄德하고 庸劣 庸劣

한 학식 學識으로 참담함을 무릅쓰고 족보 族譜 순한문 純漢文의 번역에 착수 着手하여 알기쉽도록 하였으니 이로부터 한글만 잘아는자이면

읽어 볼수있을 터이다 이번 족보 族譜번역에 연천종 連川宗 영종씨 英鍾氏와 구례종 求禮宗 재일씨 在日氏가 번역한 글이 있으나 구식 舊式한문 교수방식 教授方式을

취하였으므로 신진학도 新進學徒들이 이해 理解하기 곤란 困難한 점 點도 철호 哲鎬가 극력세밀 極力細密히 번역하여 이해 理解하기 쉽도록 하였으니

빠짐없이 꼭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원록 聖源錄과 족보 族譜책안에 간간이 끼어있는 순한문 純漢文은 이뒤에 여가 보

아 번역해둘 작정입니다 이번엔 전부 번역하려 하였으나 각과 各派員가들이 譜事가 지리한것을 원망한다 하기에 宗親會決

議의 指示에 따라 不得已 그만두기로 決定하였읍니다 이번 번역에 純漢文中에 순한문 文法上「以이니 이르가 至니 可히 能

히니 所이니 其니 有이니 者이니」하는것을 빼고 번역한곳이 있읍니다 다름아니라 이러한 純漢文을 하나도 빠진것이

없이 해석하면 도리어 말의意味가 버성기고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가답이며 또 「仍은 인 因으로 及다는 미치 이룬 逮서는

當함으로」 바꾸어 번역한곳이 있는데 漢文의 文法體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말의 國語體에 不適合치 點이 있으므로

그렇게 한것이며 또 아래와 같은 括弧「」를 넣어 이 括弧안에 우리말 國語體에 부족한點을 加入시켜 漢文文法의 原義

를 擴充시키어 쉽게알도록 힘썼으니 이글을 읽어주시는분은 그것을 理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일가의 後

進學徒들에게 부탁할것은 이번族譜를 國文으로 번역하였다하여 漢文이將次 없어질것이라고 妄斷하지말고 漢文工夫에 소

홀한 점이 없도록 한것이다 世間에 輕薄한 學者들이 漢文이 장차없어 질것이라고 소리치며 외치고있으나 그런말에

眩惑되지 말기를 부탁하는바이다 왜냐하면 한문을 지금 十億以上에 달하는 人口가 使用할뿐 아니라 日本같은데는 자

기나라 國文만으로는는 到底히 不充分할뿐더러 漢文이 자기들나라에 들어온지가 二千年가까우니 漢文이 自己들 나라글

이라고까지 極言했다 將來 東洋地域의 國交上이라든지 우리나라와 中國이 接近해있으므로 그 글은 理解할줄 알아야

將來의 國交上 支障이 없을것이다 뿐만아니라 지금 四書三經이 모두 번역되지 않았으며 또 佛經全部가 번역되지않고

開城王氏大同譜 王氏源派記

뒤에 두말을 낳으니 끝은 이름이 진의 辰義라 아름답고 제주와 지혜가 많았는데 나이 겨우 세 十五歲가 되었다 그 말누

이가 꿈에 오관산 五冠山 꼭대기에 올라 오줌을 누니 천하 天下에 넘치었다 꿈을 깨고 여동생 진의 辰義를 데리고 이야기하

니 친의 親의가 말하기를 청 請친대 비단치마로써 그꿈을 사고싶으다하니 말누이가 허락 하는지라 친의 親의가 하여금 다시

그꿈을 이야기시켜 손으로 당기어 가슴에 품기를 세번하였더니 조금있다가 몸이 움지이면서 언음이 있는것같해

마음으로 혼자 기뻐하였다 당 唐나라 숙종 肅宗황제 천자 天子되기 전에 산천 山川을 유람코저하여 천보 天寶十二年 계사 癸巳해봄에 바다를

건너 과강서포 沮江西浦에 도착하니 바야흐로 조수가 물러가고 강변에 진흙 진흙이 있었으므로 종관 從官이 배가운데 있는 돈을주어

진흙 진흙에퍼고 언덕에 오르니 뒤에 그강변을 이름지어 전포 錢浦라고하였다

소주 小註 민지편년강목 閔漬編年綱目에 벽암사 碧巖寺 선록 禪錄을 인하여이르되 당 唐나라 선종 宣宗의 나이 세 十三歲 목종 穆宗조 당 當하여 희릉 희릉으로 용 龍

상 床에 올라서 못 신하 臣下에게 읍 揖하는 형용을 함으로 목종 穆宗의 아들 무종 武宗이 싫어하였더니 무종 武宗이 천자 天子位에 나아가

는데 이르러 선종 宣宗이 궁중 宮中에서 해 害를 만나 목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가만이 나와서 멀리도망해 천하 天下를

두루 유람하여 흠하고 막힌곳을 다 알게되었다 염관 鹽官(고을이름) 안선사 安禪師가 장래 천자 天子될 용안 龍顏임을 짐작하여알고

대우를 특별히 두텁게 함으로 염관 鹽官에 머물기가 매우 오래되었다 또 선종 宣宗이 일찍 앞날 광왕 光王이 되었더니 광 光

은 곧 양주 楊州에붙은 염관 鹽官은 항주 杭州에붙은 고을 高을인데 다 동해 東海에 인접 隣接하여 장사하는배가 왕래 往來하는 지방 地方이

開城王氏大同譜 序文

서기 西紀 一九一八年 戊午譜 重刊以來로 四十餘年 世界의 情勢變遷으로 祖國光復은 이룩하였으나 南北이 兩斷되고 悲劇인

六・二五 (檀紀四二八三年) 動亂으로 國土가 廢墟됨에 따라 族親間의 生死與否를 알길 없어 愛族上 느낌의 더욱 懇切하와

이에修譜하는 바입니다 國土는 人爲的 兩斷으로 因하여 往來가 不能할뿐더러 族親이 各地에 散居하여 花樹會 未成으

로 會同이 뜻같이 안되어 宗議조차 歸一키 어려워 서로 슬퍼하든中 丙申(단기四二八九年)歲 秋季 校書監公 享祀日에

구례종인 仁錫氏 발의 원근제중 모의친등 대종회 열리는 동시에 修譜를斷行키로 결의 이래 四個年餘를

추진 推進하였든바 以南에도 單文에 빠진것이 없지않고 또 財力難과 기타許多한 難關에 逢着되었으니 이것은 우리의 誠薄

한 所致인지 알수없으나 寒心한 感을 禁키 어려우며 刊行課程에 있어서도 때는 옛적과 다른지라 異論이 區區하여

반복 檢討한바 在來 純漢文 記載式을 國漢文을 併用하여 革新的으로 變역케하여 後人들의 披覽에 便宜를 도모 하였

으며 또 時宜를 參酌하고 衆論이 順應됨에 따라 族譜를 全二卷冊子로 短縮 하였읍니다 슬프다 累百年以來로 太祖님의

妥靈祀處인 漣川의 崇義殿閣은 過去六・二五 動亂으로 因하여 破壞 되었으나 現在로서는 軍의 一線地區인 關係로 再

建이 遼遠할듯하며 以北族親의 安危조차 漠然하니 千古에 痛恨이 이에 비할바 있으리요 誠心所在에 金石은 可透라

하였으니 오직 舉族의 으로써 殿閣을 期必코 再建할것을 宣誓해야 될줄아나이다 檀紀四二九二年 秋季를 期하여 僉宗氏

의 熱誠과 當局의 後援으로 崇義殿遺址에 臨時設位하여 春秋 享祀를 定期的으로 모시게됨을 多幸으로 思料하오나 悚

西紀一九六一年
辛丑신축八月 日에
後孫후손
峻恒준항은
삼가 서문하엿음

續刊開城王氏族譜序

昔我王氏當鼎革時死亡略盡其餘或遁於他邦或變姓竄於田野世所傳玉琴馬田全多王氏寄竄有遇諸野行歌且和曰彼珮玉者不忘本也有琴無絃其聲啞啞非芻伊栗飯彼之馬伏於田間堪處人下朴燕巖以爲蓋不能無畏約爲隱以相識今讀其詞不覺潛然而先祖校監公其時亦變從母姓匿於忠原幸賴太祖在天之靈復得全安然如千章之木經大冬霜雪摧折零落生意蕭然雖逢陽春柯葉不繁以故王氏諸族零丁孤子散居州縣落落如晨星僅以繼世逮韓正宗戊午始合刊爲譜其後刊於庚戌刊於辛巳今又續而刊之摠十四卷嗚呼以死亡逃竄之餘成累秩聯篇之富茲非幸歟顧舊譜以草創遺文故事未盡掇拾稍涉時諱者又不敢錄而後世因之尙有未完是用仰承庭訓勉循僉意乃就前後刊本補其闕漏訂其訛謬刪其重複剪其煩蔓務從簡核又以太祖恭愍兩朝肖像暨陵殿臺址並撮影摹之安于卷首聖源錄宗族記事係高麗者以爲族譜上編校監公以下事係韓朝者以

爲下編區以別之又次爲目錄一編庶開卷瞭然竊惟念先祖免於禍而保其
 姓名子孫相承以至於今日不啻出焚溺而登衽席矣然其操心危行不以安
 泰而少弛有如古人之無忘在莒也則吾宗其殆庶幾乎是役也何莫而非諸
 宗之力而蒐輯校正麻田求禮二宗尤有力焉不可使後人不知也丁巳冬裔
 孫前侍講性淳謹序

계속해서 인쇄한 개성왕씨 족보서문

옛적 우리王氏가 국권이 바뀌어질때를 당해 사망하여 거의 다하고 기타 혹 다른나라에 도망가고 혹은 성

변하여田野에 도망해 숨으니 세상에서 전하는바 옥금마전 전씨 왕씨에서 도망간것이 많다하니라 모든 들

에서 서로 만나 노래하고 화답하여 말하기를「지옥을 찬자는 근본을 잊지안함ियो 거문고있어 줄 없으나 그소리 아아

하며 꽃과 저 조를 먹지않고 밥먹는 저馬이며 발사이에 얹드리며 사람아래에 견디고있다」하니 박연암 말하기를

대개 두려워함이 없지아니하여 약속하고 숨어서 서로 알게하였다하니 지금 그말을 읽어볼적에 눈물흘림을 금 못할

것이며先祖 교감공 외가姓으로 변하여 충원(지금충청도)에 숨었더니 다행히 태조님의 하늘에 계신

영혼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 안전함을 얻었으나 그러나 천그루의 나무가 크게 찬 겨울철에 서리와 눈비를 겪고

開城王氏大同譜 序文

꺾어지고 떨어져서 살아날 뜻이 아득한 듯하여 비록 마땅한 봄을 만났으나 가지와 잎이 번성치 못한 것과 같으니 이런 고
로 王氏의 모든 겨레가 뜻을 잃어버린 듯 외롭고 고단하여 각각 흩어져서 고을과 고을에 살게 되었으나 서로 떨어져
지고 떨어져진 것이 흡사 새벽에 드문드문 있는 별과 같이 겨우 대만 이었더니 李朝 正宗戊午年을 당하여 비로서 합쳐서
인쇄하여 족보를 하고 그 뒤 庚戌年에 족보를 인쇄하고 辛巳年에 족보를 인쇄 하였으며 지금 또 계속하여 족보를
인쇄하니 모두 열네 권이 되었다 슬프다 죽고 도망한 나머지 여러 冊卷의 풍부함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다 행한 것이
아닐까 예전 족보 처음 시작하여 만든 것을 回顧하면 남은 글과 예전 일을 다 編綴하여 收拾하지 못하고 漸漸 時期를 경과
하여 諱를 또 敢히 기록치 못하고 後世에 因하여 譜事를 하였으나 오히려 완전치 못한 것이 있었으므로 이로써 우리
리 家訓을 받들고 여러분의 意見을 힘써 좇아 前後 인쇄한 족보 책에 依據하여 빠진 것을 補充하고 그릇된 것을 訂正하고
중복 重復된 것을 없애고 煩雜한 것을 깎고 힘써 간단한 요지만 추렸으며 또 太祖 恭愍二君王의 肖像과 陵과 殿과 滿月臺
기지 基地의 사진을 박어 卷首에 奉安하니라 聖源錄 宗族記에 일이 高麗에 관계된 것은 족보 上編으로 하고 校監公以下
李朝에 관계된 것은 下編으로 하여 區分하고 또 다음에 目錄一編을 하였으니 거의 冊을 펴봄에 환하게 밝아졌다 가만
이 생각하니 先祖께서 禍를 면하고 姓名을 보전하고 자손이 서로 이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불에 타지고 물에 빠지
는 禍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편안한 요자리에 올랐도다 그러나 操心하고 행실을 주의하여 편안한 것으로 조금도 마음

을 놓지 말고 옛적 사람들이 거국 舊國에 있을적을 잊지 말라는 것과 같이 하면 우리宗族은 거의 제화가 없을터이다 보사 이譜事가

어찌 모든 일가들의 힘으로 모아서 편집하고 교정 校正한 것이 아님이 없었으리요 마는 마전 구례 麻田 求禮 두 일가들이 더욱 힘을 썼

으니 뒷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정사 丁巳年 (서기一九一七) 겨울에 후손 전에侍講으로 있던性淳이 삼가 서문하나이다

家之有譜猶國之有史也史不記實何以爲史故孔子曰觚不觚々哉觚哉自夫人之有譜以來未有如吾王氏譜之曖昧不實者也聖源錄之漏廢王父子何也十八大家名字之不傳何也是由焚毫之初禍網彌天而覆巢之下未暇收拾灰燼以致疎漏也以車原頤元天錫兩家文籍之遇灾推可知也野記所云王氏之爲玉爲琴爲田爲金爲全爲馬其匿跡而圖存百載之下猶令人涕泗然而歷世譜牒弁卷之文並無一語及此抑又何也以今思之時有所拘勢有所禁容有不得不然要在覽者諒之耳且如 恭愍王之英悟不失爲中主而鄭史之誣蠚無所不至可勝歎哉然而國史非其子孫之力所能訂正至於私譜今日不改則將爲千載所誤其可已乎雖然凡天下事無大無小遇艱難

辛苦而沮敗者非善謀者也願吾宗勿憚勤勞必此譜之有成而去華就實爲
 吾家信史至幸也夫余於譜役雖無小補特有所感憤而爲之敢言丁巳冬十
 月裔孫粹煥謹序

집에 족보있는것이 나라의 역사 歷史있는것과 같으니 역사에眞實함을 기록치않으면 어찌 역사라하겠는가 이런고로 공자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술잔이 술잔같지않으면 술잔이라할까 술잔이라할까」 말씀하였으니 대번 사람이 족보를가지고 있는以來로

우리王氏 왕씨 족보같이 애매하고 진실치못한것이 있지않습니다 성원록 聖源錄에 폐왕부자 廢王父子를 기록치 않고 빠진것은 어찌한 일이며

十八大家의 대가 이름 글자도 전하지 못하게함은 어찌한일인가 이것이 털끝만 한것도 모두 붙잡아 없애는 당초에 재화 災禍의

그물이 하늘에 가득찬듯 하고 집이 엮어지는밀에 수습 收拾할 겨를이없고 불타서 계가된 나머지예 빠지게된 소치 所致라 차원 車原

부 類와 원천석 元天錫 두집의 문적 文籍이 제화를 만난것도 추측 推測하여 알것이라 민간 民間기록에 말한바 왕씨 王氏가 옥 玉 금 金 전 田 김 金 전 全 마씨 馬氏

가 된것이 종적을 감추어 살기를 도모 하였으니 백년 百年下에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한것이다 그러나

지나간 세대 世代之 족보책과 변편 變편 서적 書籍과 弁卷(書籍과 같음)의 글에 아울러 한말 一言도 이에대한 문구 文句가 없었으니 이 또한 어찌한일인가

지금 생각하여보니 그당시에 구애 拘碍되는바있고 국세 國勢로 금 禁하는바 있었으므로 그렇치않을수 없었으니 要컨대 要컨대 이글을 보는

者는 양해하는데 있을뿐이었다 또한 공민왕 恭愍王같은 영조 英祖로서 중주 中主될 자격 資格을 잃지안하였으되 정가 鄭哥(鄭麟趾를말함)가 만든

開城王氏大同譜 序文

國史국사에 무함하고 더럽혀 이르지않을바 없었으니 탄식할일이로다 국사 그러나 國史는 자손子孫의 힘으로 능히 정정訂正하고 고치지

못할것이나 私家의 사가 족보에 이르러서 오늘날 고치지않으면 장차 천년千年에 그릇된 바 될것이니 그만두고 말겠느냐 비록

그러나 천하天下일이 대소대소가없이 어렵고 극심한 고생을 만났다하여 계획을 실패시키는 자者는 선善하게 자자 피하는 자者가 아니니

願컨대 우리일가들은 부지런하고 괴로움을 꺼리지말고 반드시 이족보를 성취하여 외화外華는 버리고 진실을 성취시켜 우

리집 신용있는 역사가 되게함이 지극히 다행 할것이다 내가 보사譜事에 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없으나 특별이 감분感憤되

는바 있어 이것을 위하여 감히 말하나다 정사년丁巳年 (서기一九一七) 겨울十月에 후손 수환粹煥은 삼가삼가 서문하나이다

百川縈紆派流不同而溯源則同矣萬木叢雜枝葉不一而追本則一也奚獨

水木爲然人之宗族亦然茲乃譜牒之所由興也開城王氏以勝國後裔寢以

零替殆近五百年之久矣逮夫今 上丁卯有命自天麗朝各陵一新修築而

至於 太祖顯陵則規模儀節一依我朝陵寢煥然改觀猗歟我國家崇報前

朝之意至矣盡矣余於是時職叅居留祇奉成命躬自董竣而實不以前朝而

有間粵五年壬申繼以臨御故都特恩荐降科第之榮耀資秩之華撫迥出尋

常伊時事蹟之可紀可錄光前耀後者盖亦多矣烏可無修譜之舉乎且譜冊

之刊距今三十有二年苟不及今踵成則世級寢遠子姓蕃衍若不愈久而愈

昧哉噫前朝遺裔之散在四域者旁搜博採一以伸追遠敦宗之意二以明同

源一本之誼俾眉山之序族釐州之合宗罔專美于前代是爲之序 當宁即

位十八年辛巳季冬正憲大夫議政府右叅贊光山金壽鉉序

百川이 백천 얹히고 얹히어서 지류 支流는 갈지 않으나 물 근원을 거스려 찾으면 한줄기요 만목 萬木이 덩불로 섞이어서 지엽 枝葉은

갈지 않으나 나무뿌리를 좇으면 한나무라 어찌 물과 나무만 그리할까 사람의 일가와겨레도 또한 그리하니 이로 인 因하

여 족보가 생긴바라 개성왕씨 開城王氏가 전조후손 前朝後孫으로써 능침 陵寢이 퇴락 頽落된지가 거의 근오백 近五百년이나 오래되었다 지금임금 정묘 丁卯년

(서기一八六七)에 이르러 임금의 명령이 하늘로부터 있는듯하여 여조각릉 麗朝各陵을 한꺼번에 새로修築하였었다 태조현릉 太祖顯陵에

이르러서는 규모 規模와 의절 儀節이 한갓 아조릉침 我朝陵寢에 의방 依倣하여 빛나게 고쳐보게 되었으니 기록하다 우리國家가 전조 前朝를 숭보 崇報

하는뜻이 지극히 다하였도다 내가이때에 직분 職分이 개성유수 開城留守로 있어서 공경이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자신 自身이 준공 竣工을

감독 監督할적에 진실로 전조 前朝라 하여 차별 差別된것은 없읍니다 五年을 지나고 임신 壬申년에 임금이 계속하여 송도 松都에 거동하시어

특별한 은혜가 거듭 내리심에 과거 科擧의 영화 榮華와 관직 官秩을 진급 進級시켜 빛나고 성 盛함이 범상 凡常에서 벗어 났으니 이때 사적 事蹟의

기록 전세 前世에도 빛날 것이며 후세 後世에도 빛날것이 대개 또한 많았었다 어찌 수보 修譜의 거사 擧事가 없을까 또 족보 族譜인쇄한

開城王氏大同譜 序文

지가 지금三十二年^년이라 진실로 지금계속하여 족보를 하지 아니하면 代數^{대수}가 점점 멀어 지고 子孫^{자손}이 번성하여 질터

이니 어찌 더욱 오래될수록 더욱 어둡지 않겠음니까 슬프다 前朝^{전조}에 남은후손이 四方^{사방}에 散在^{산재}한者를 널리 調査^{조사}하

고 널리 찾아서 遠代^{원대}의 祖上^{조상}을 좇아서 일가의 친목하는뜻을 배풀고 둘째는 근원도 같고 根本^{근본}이 같은誼를

밝히어서 옛적眉山^{미산}(고을이름)의 餘^윜가 秩序^{질서}있게하고 釐州^{이주}(고을이름)의 일가가 合^합쳐진것으로 하여금 오로지 前代^{전대}

사람들만이 아름다운일이라고 하지말기를 바라오며 이를爲^위하여 서문하나이다 지금임금 卽位^{즉위}十八年^년 辛巳^{신사}(서기一八八一

一十二月^월에 正憲大夫^{정헌대부} 議政府^{의정부} 右叅贊^{우참찬} 光山^{광산} 金壽鉉^{김수현}은 삼가서문하나이다

噫我王氏自是勝國之後裔幸逢今上之休代三萬兩劃下之錢寔出於非常之典五百年荒頽之陵改觀於不日之役此固吾宗之共所感恩者而當是時也余以寢郎躬自監董克竣其事故尤切感激矣特恩降幸于故都矜其遺裔科第以榮之資秩以寵之繼以臨御本陵王氏子孫入侍之場至承睦族之下教今我諸宗之敦睦尤當加於平日也睦族之計亶在於修譜而不失世代踵成之然後可免愈往愈昧之歎故在昔戊午我曾考刊譜跋文曰繼此而續成永世勿墜則不能無望於後人云爾其後五十三年庚戌我先考續譜序文

亦曰蓋其源譜或有亡而不傳者亦有闕而未入者其勢不可不通爲大譜也
邇來三十有二年世疎級遠已有不傳不入者人易派分亦多可記可錄者焉
計欲續刊者久矣而粵自丙寅身絆職事奔走不暇恒所齎鬱矣自漣川恩移
溫陽而去年仲夏何幸有泰仁宗在忠裸足而來議及此事而將設所於泰仁
地余聞而樂之既許開役之勿靳而旋慮成刊之未必也惟此宗人果於做事
遂決意通諭而是歲冬幸又移除龍安龍安即與泰仁同省不遠之地也隨事
隨議而及其收單之日宗中議者皆以爲惟我王氏之譜所如非松麻兩處則
不可余則以爲不然也爲其同族者其於尊祖重宗之事何處不可失今不成
繼舊無期況又當古來之稀齡恐不見新續之美事故力言勉行僉議詢同乃
收八域之單既成九卷之譜此奚但爲一時之幸也哉庶有效於感恩厚俗之
戒而亦有補於崇先垂後之義也 上之十八年辛巳仲秋後孫龍安縣監
庭羽謹序

슬프다 우리王氏가 왕씨 前朝後孫으로서 전조후손 다행이 금상 今上의 금상 너그러운 금상 세상을 만나 만량 三萬兩을 하사 下賜하신 하사 돈이 돈이 진실로 비상 非常한

開城王氏大同譜 序文

법도에서 나왔으므로 五百年 동안 황폐한 陵을 短時日內의 役事로 고쳐보게 되니 이것이 진실로 우리 일가들이 함께

임금의 은혜를 느낀바이다 이때를 當하여 내가 陵官으로서 직접감독 能히 그 役事를 마치었는고로 더욱 간절히

감격 感激하였었다 특별한 은혜가 거듭내리어서 임금이 松都에 거동하여 그 남은 후손을 불쌍히 여겨 科擧로서 榮華를

게 하시고 進級으로 사랑하시며 이어서 本陵(顯陵)에 親臨 하시었다 王氏子孫이 들어와서 임금을 모시는 장소에

서 지금히 일가들끼리 친목하라고 가르쳐 주심을 들으니 지금 우리 모든 일가들이 敦篤하고 친목하기를 더욱더 땅히

평일 平日보다 더할 것이었다 일가들이 친목할 때는 진실로 譜事를 하는데 있으니 世代를 잊지 않고 계속하여 족보를 성취한

然後에 더욱 지나갈수록 더욱 어두워지는 단식을 면 免할 것이다 그런고로 옛적 戊午年에 우리 曾祖考께서 족보를 인쇄

한 跋文에 말씀하시기를「이를 이어서 족보를 계속적으로 성취시켜 永世로 끊어버리지 말기를 뒷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지않노라」고 말씀하시고 그後五十二年 庚戌에 우리 先考께서 계속한 족보서문에 또 말씀하시기를「대개 原譜

에는 或 亡하여 傳치 못한 자가 있으며 또 빠져서 들지 못한 자가 있으니 그 形勢一通으로 大譜를 하지않으면 안 되겠

다」고 말씀하시었으니 邇來로 三十二年이 되었다 世級이 疎遠하여지므로 전하지 못하고 들지 못한者 있으며 사람이

바꾸어지고 派가 갈림에 또한 기록할 것도 많어지므로 피하여 계속하여 인쇄코저한지가 오래되었으나 자나간 丙寅年부

터 몸이 職事에 매여있어 분주하기에 겨를이 없어서 항상 답답하게 여긴바라 漣川으로 부터 溫陽에 轉任되었더니

去年거년五月에 어찌다행히 泰仁태인에있는 일가 在忠이가 맨발로 걸어와서 이 족보일에 議論의논이 되어 장차 譜所보소를 泰仁에

설치하려고 함으로 내가 이말을 듣고 즐겁게 생각하고 이미 譜事보사 開始개시하는데 吝嗇인색하지말기를 허락은 하였으나

인쇄를 성취하는데 반드시 못할까 싶어 걱정하였더니 이 宗人종인이 일하는것이 果斷性과단성이 있으므로 드디어 決意결의한 結果결과

各處각지에 通文통문하였었다 이해 겨울에 다행이 또 龍安縣용안현에 轉任전임되니 龍安과 泰仁은 같은道內이고 距離거리도 멀지않은곳이

라 일에 따라 隨議수의하고 收單수단하는날에 이르러 宗中議論종중의론이 다 우리王氏譜所는 松都나 麻田이나 두곳이 아니면 안된

다 함으로 나는 그렇지않다고 하였읍니다 同族동족되는者 그할아버지를 높이고 일가를 소중케하는 일에 어느곳이라 하여

안된다고하겠느냐 時期시기를 잃고 成事성사를 못하면 舊譜구보를 계속하는데 期約가약이 없거던 하물며 또 마땅히 舊式老人구식노인들이

새로계속하는 아름다운 족보일을 보지못할까 두렵게여겨 힘써말하고 힘써行한 結果결과 여러분의 議論의논이 一致치되었으므로

八道도에 收單수단하여 이미 九卷권의 족보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어찌 다만 一時시의 다행만 될뿐일까 거의 은혜를 느끼고

풍속을 두렵게하는 경계에 효력이 있을것이며 또 先祖선조를 높이고 後孫후손에 모범을 보이는 뜻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임금十八年년 辛巳八月에 후손 龍安縣監 庭羽는 삼가 서문하나이다

詩曰豈無他人不如我同姓此所以同姓古所敦而及其年代寢遠雲仍散處
至於服盡而親盡親盡而情盡則塗人而已矣視同姓如道人則譜牒之作烏

可已乎往在戊午我皇考積翠公博採屢世之文獻旁收八域之譜單彙成三編八梓廣布於今爲五十三年世益遠而派益分昭穆旣遠已爲路人此余等之用是爲懼計欲續成而蓋其原譜或有亡而不傳者亦有闕而未入者其勢不可不通爲大譜上自聖源錄下至新續編參互考正輯而成之合爲五卷向之視若塗人者寔爲我同源而雖世疎人易有足可徵而可攷者矣奚但爲敦宗厚俗之義而已哉嗚呼我王氏系出高麗太祖第十五子東陽君史稱孝隱太子實爲始祖而不以太祖爲祖者即大夫不敢祖天子之義也以故譜以孝隱爲首而於赫璇派實昉於此或言王氏之先出自黃帝其言渺茫無徵不信自孝隱傳至十二世有諱疊值麗運訖變稱母姓避禍外家李太宗因夢求麗裔拜公校書監有子三人俱顯朝籍今王氏之貫開城者皆其後也譜成之日會諸宗而告之曰此韋家花樹會也世世子孫親親姁睦知爲同源而不視塗人則今我修譜之義庶有効於來世矣 哲宗元年庚戌七月日後孫前齊陵令師羲謹序

詩傳에 말하기를 「어찌 다른 사람이 없으리요」라는 우리 동성 同姓만 같지 못하다」 하였으니 이 동성 同姓은 옛적에도 두렵게

여긴바이나 그 연대 年代가 점점 멀어지고 자손이 곳곳에 흩어져 복 服이 없어짐에 따라 친 親한 것도 없어지고 정 情도 없어지

면 길가는 사람 비슷할뿐이나 동성 同姓보기를 길가는 사람 같이 여기게 되면 족보 만드느것을 어찌 그만두고 말겠읍니까

지나간 무오년 戊午年에 있어서 우리 선고적취공 先考積翠公이 널리 누세 屢世(여러대)의 문헌 文獻을 조사 調査하고 널리 八道에 족보收單을 하

여 三編을 만들어 인쇄하여 널리 頒布한지가 지금 五十三年이 되었다 代는 점점 멀어지며 파 派는 점점 나누어지고 昭

穆이 멀어짐에 따라 길가는 사람같이 여기게 되니 우리들이 이로써 두려워 여겨 계획하여 계속해 족보를 만들려고

하였으나 대개 그 원보 原譜에는 혹 或 망 亡하여 전 傳하지 못한者가 있으며 또 빠져서 들지 못한 者가 있어서 그 형세 形勢 一通

으로 대보 大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으니 위는 聖源錄으로부터 아래 새로운譜冊에 이르기까지 서로 參考하여 訂正하고

편집하여 족보를 만드니 합 合하여 五卷이 되었었다 이로因하여 전날 길가는 사람같이 보던者가 진실로 우리同族인 동족 同族

줄 알게되고 비록 대수 代數가 멀어지고 사람이 바꾸어졌으나 만족 滿足하게 증거되며 참고할수 있게되었으니 이 어찌 다

만 일가를 두렵게여기고 풍속을 순후하게하는 뜻만 될뿐일까 슬프다 우리王氏의 계통 系統이 고려태조 高麗太祖 제 十五子 東陽

군에서 나왔는데 사기 史記에 말한바 효은태자 孝隱太子가 진실로始祖가 되었었다 태조 太祖로始祖를 하지 않는것은 대부 大夫가 감 敢히

天子를 천자 天子를 할아버지라고 못한다는 뜻에서 나온것이다 이런고로 족보에 효은태자 孝隱太子를 으뜸을 삼는것은 赫璇派에서 진

開城王氏大司譜 序文

실로 이것을 밝혔었다 어떤사람이 말하기를 왕씨 선조 황제씨

신용도 못할것이다 효隱으로부터 傳하여 十二世孫 諱 璽에 이르러 高麗은수가 다된때들 당하여 외가姓으로 변성

하고 외가집에서 禍를 피하였더니 李朝 태종왕 現夢으로 因하여 고려後孫을 찾았을때 公(諱 璽)을 교서관

슬을시키였고 아들三人도 함께 조정의 文籍에 이름이 나타났으니 지금王氏의 開城으로 본한자가 다 그후손이다

족보 完成한날에 모든 일가를 모아놓고 말하기를 이것은 위씨 韋氏집 花樹會와 같으니 代代로 자손이 친척간 화목

하며 同族되는줄 알고 갈가는 사람같이 보지아니하면 지금 우리족보 만드는데 뜻이 거의 후세에까지 효력이 있을것

이다 철종 정술 庚戌(서기一八五〇) 七月日에 후손 전날 齊陵令으로있던 師義는 삼가 서문하나이다

昔者姬周氏之始受命也封微子於宋以奉湯祀其策曰微子之命二王之後
助祿京師其詩曰振鷺之章盛衰興亡固無奈乎天而使其芬苾不替膚敏有
譽此周德之所以盛也我朝之待王氏亦然置崇義殿於麻田祭太祖以下四
王每歲春秋命掃除世祖以下三十四陵近又於顯陵置祭閣時節降香祝並
置直官以王氏後爲之崇報如此施及其裔始則舉王璽於夢求王循禮於野
出王康王承寶於海自後王希傑由舍人躋宰列王宗信由節度充朝天副价

朝家之恩禮也如此有若王玉倡義討倭王景祺不仕昏朝王希彥死守孤城王氏之報效也又如此雖詩書所稱象賢之義有客之美何以加此齊東之言以爲我朝之初勝國餘裔靡有子遺如秋江冷話之類不勝其紛紜夫鼎革之際其強宗懿親勢固難全觀於東鶴寺記蓋亦有之而實非我聖祖本意職由當時大臣未能如周公君陳之毖殷世之人雖以爲口實然竊觀往牒國祚綿遠者其遇前朝子孫無不盡禮周於三恪宋於柴氏是已惟我朝仁厚立國卜年萬億則豈其武成之日真有漂杵之血哉嘗試論之麗朝統三之功盛矣宜其子孫之不億而今之開城王氏乃孝隱太子一派耳蓋想五百年間屢經鄭仲夫崔忠獻之亂固零落殆盡況以利利之嗣祝髮居半小白之妹不嫁者多國俗如此王族之不蕃固宜獨孝隱派不染焉此所以有後也歟今其雲仍多處陵傍耕桑之暇能攻文業武神聖之後旣異庶姓候服之初尙多顯者繼此而賓于王朝安知不如昔之盛乎或言麗氏之先出於黃帝其言茫昧吾莫之知其曰聖源錄者麗史所紀也吾不必言其以孝隱爲祖者譜所叙也大夫不

敢祖諸候禮也譜既成以余職忝居留要題卷首余嘉其敦宗厚俗非特爲故
都美事因以序列朝家之德意固守土者職也是爲之序 正宗二十一年丁

已仲春開城留守趙鎮寬序

옛적 희씨 姬氏가 비로소 천명 天命을받어 주국 周國을, 세울적에 그 전조 前朝인 은 殷나라 망주주왕 서형 庶兄 미자계 微子啓를 송 宋나라에 봉 封하여

은 殷나라先祖인 탕 湯王의 제사를 받드라하니 그 책서 策書를 이르되 미자 微子의 명 命이오 서전 (書傳에있음) 하 夏나라와 은 殷나라의 두임금

후손 後孫이 주 周나라서울에와서 주 周나라 종묘제사 宗廟祭祀를도운다하니 그 시 詩를이르되 진로 振鷺의章이라 시전 (詩傳에있음) 성희홍망 盛衰興亡이 진실로

천운 天運에 이적할수없으나 제사 祭祀를 폐 廢치않고 은 殷나라 손자신속 孫子臣屬들 중 中에 아름답고 敏達한 민달 新비로하여금 명예 名譽있게하니

이것은 주 周나라 도덕 道德이 성대 盛大한바라 아조 我朝 이조 (李朝)에서 씨대접 王氏待接한것도 또한 그리하여 崇義殿을 마전 麻田 연천군 (지금漣川郡)에

두어 太祖이하 四王 四王을 제사하고 매년춘추 每年春秋에 명령 命令하여 세조이하 世祖以下 三十四陵 三十四陵 근방 近傍을 소제 掃除케하고 또 현릉 顯陵에 제각 祭閣을

두어 春秋節序에 향축 香祝을 내리우고 아울러 守直官을 두되 왕씨후손 王氏後孫으로하여 숭보 崇報하는것이 이와같고 그 후손 後孫에 은 恩

시 施하는데 미쳐 比로서 王 王簪을 꿈으로 因하여 들어쓰고 왕 王循禮를 전야 田野에서 구 求하고 王康 王康 숭보 王承寶를 해도 海島에서 나오 出

게하니 후 以後로부터 王希傑 王希傑은 사인 舍人으로서 말미암아 宰相列에 오르게되고 王宗信은 절도사 節度使로 말미암아 朝天副价 중 (中

국천자 國天子에게 조견 朝見할적에 부사 副使로 되였다는뜻 充用하니 조가 朝家(國家)의 은례 恩禮가 이와같고 王玉 王玉같은이 있어서 義를

開城王氏大同譜 序文

부르짖고 왜적 倭賊을 쳤으며 王景祺는 벼슬 안함으로 朝廷을 어둡게 하고 王希彦은 죽음을 다하여 외로운城을 지키었음
 에 王氏의 씨 같은 효험이 또 이같이 비록 詩書에 일컬은바 後嗣子孫이 先聖王의 어질고 옳은것을 본뜨면 손님대
 접의 아름다운도 있다하나 어찌 이보다 더할까 齊東의 말 (民間野話)이 我朝 처음에 前朝後孫이 남음이 있지않다하
 여 南秋江의 冷話같은 類가 紛紜함을 이기지못하나 대범 國權이 바꾸어질무렵에 強한 일가와 아름다운 親族이나
 형세 진실로 온전하기 어렵고 東鶴寺 기록에보매 대개 또한 이러한 사실이 쓰여있으나 실상은 우리 聖祖 (李太祖) 본
 의가 아니고 주장 그當時의 大臣들이 周나라 臣下 周公과 君陳이가 그 前朝인 殷나라 자손에게 삼가 하였던 것과
 같이못한 處事에 因由함이라 세상사람이 이것으로 口實을 삼으나 가만이 지나간 歷史冊을 보건대 國祚가 綿遠한
 것은 그 前朝子孫을 대우함에 禮를 다하지아니함이 없었으니 周나라의 三恪 (前朝인 虞나라와 夏나라와 殷나라의 三
 代後孫에 벼슬을 封하여 그 先祖제사를 받들게함을 말함 恪은 공경한다는 뜻) 과 宋나라가 柴氏에게 이러한 따름이
 라 오직 我朝가 仁厚하게 나라를세워 萬億年을 누릴계획이니 어찌 武로 성공하는날에 참으로 방아공이가 뜯만한
 피가 있었을까 일찍 試論하건대 麗朝가 三韓을 統一한功이 盛하도다 마땅이 그자손의 數가 億이 아닐것이냐
 지금 開城王氏는 孝隱太子 一派뿐이라 대개 생각할진대 五百年間에 여러번 鄭仲夫 崔忠獻의 亂을 지나서 진실로
 멀어지고 멀어져 거의다 되었거던 하물며 寺僧의 世代이음 (중은 남의자식을 상자로 하는 뜻) 으로 斷髮한者가 半

開城王氏大同譜 序文

이나 되고 소백산 小白山의 자매 姊妹들이 시집가지 시집가지 않는者 (女僧된다는 뜻) 많았었다 나라 풍속이 이 같으니 王氏겨레가 변성치 안

함이 진실로 마땅하고 홀로 효은파 孝隱派만이 불교 佛敎에 물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리함으로 후손 後孫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

자손이 곳곳에 많고 능 陵峽에서 발갈고 뽕따는 여가 餘暇에 능 能히 글을 연구하고 무 武를 업 業을 삼아 신성 神聖한 후손이 서인 庶人의

姓과 달라서 아조 我祖에 굴복할 처음에 오히려 조경에 이름이 나타나는者 자 많았으니 이로 계속하여 王朝에 빈례 賓禮를 받

으면 어찌 예전같이 성 盛치않다 하겠는가 혹 或 말하되 고려왕씨 高麗王氏의 선조 先祖가 황제 黃帝에서 나왔다 하나 그말이 아득하고

어두워 내가 알지 못하고 성원록 聖源錄은 고려사기의 기록한바라 내가 말할 필요 必要도 없으며 효은 孝隱으로 할아버지를 삼는것은

죽보에 서문한바와같이 대부 大夫가 감히 제후 諸侯王을 할아버지라고 말하지않음은 예 禮라 죽보가 이미 성취하였음에 나의

직분 개성유수 開城留守에 있음으로 인 因하여 책머리에 서문쓰기를 요구 하기에 내가 그 일가를 돈독 敦篤히하고 풍속 風俗을 순후 純厚

케 함을 아름답게 여기매 특별히 예전 도음의 아름다운 일이 될뿐아니라 인 因하여 서문 序文으로써 조가 朝家の 덕의 德意를

列記함은 진실로 이땅을 지키는 자 者의 직분 職分이라 이로서 서문 序文하나이나 정조 正祖二十一年 (서기 一七九七) 정사 丁巳二月에 개성 開城

유수 留守 조진관 趙鎭寬은 서문하나이다

○ 조주 小註 조진관 趙鎭寬의 서문을 살펴보니 얼마나 아침하고 간사한 말인것을 엿볼수있다 왜냐하면 고려오백년간 高麗五百年間에 여러

번 정중부 鄭仲夫 최충현 崔忠獻의 난 亂을 지나서 王氏겨레가 이관제로 떨어져서 거의다 되었다하고 또 절애중의

세대 세대 이음으로 단발 斷髮한자가 반 半이나 되고 소백산 小白山의 자매 姉妹들이 시집가지 않는者 자 者 많았기 때문에 王氏 씨 氏가 번성치

안한것이라 하고 홀로 효은파 孝隱派만이 불교 佛敎에 물들이지 않은관계로 後孫 후손 子 子 있었을것이라고 하였다 鄭仲夫 정중부 崔忠獻 최충헌 公 公

一時 시세도 勢道를 부린일은 있어도 王氏 씨 氏가 죽인일은 없으며 또 王氏 씨 氏가 佛敎 불교 佛敎를 믿었기 때문에 子孫 자손 子 子 번성

치 못한것처럼 간사한말을 꾸미었으니 그의人格 인격 人格을 추측하여 알수있다 아무리 옛적에 말한마디 잘못하면 모가

지가 달아나는 時代 시대 時代라 할지라도 이러한 말을 안하여도 넉넉히 序文 서문 序文을 지을수 있는것이다 君子 군자 君子 같은면 몇千年 천년 千年

뒤의 일까지 깊이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慎重 신중 慎重히 하는 것이지만 小人 소인 小人이라는 것은 目前 목전 目前의 利益 이익 利益과 榮華 영화 榮華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첨이 일수 인것이다 이 序文 서문 序文이 矛盾 모순 矛盾된點 점 點이 많으므로 약간 기록하여둔것이다 (小註 소주 註 끝)

始祖

二

世三

世四

世五

世

懿祖

世祖

太祖

姓王氏諱不傳或云唐貴姓子追尊元德大王母辰義外祖寶育 妃貞和王后

諱不傳或云諱作帝建追尊景康大王 妃元昌王后豆恩姑角干女葬溫鞋陵(在開城)
諱隆或云古諱龍建字文明追尊威武大王 妃威肅王后韓氏葬昌陵(在開城)

應運元明光烈大定睿德章孝威穆神聖大王諱建字若天世祖長子西紀八十七年(唐乾符四年)丁酉正月丙戌生西紀九一八年戊寅六月丙辰泰封諸將推戴爲登極西紀九四三年(後晋天福八年)癸卯五月丙午薨在位二十六年御壽六十七葬松嶽西麓萬壽山顯陵○高麗太祖계서는二十五王子를 두시었으며其中賢明하고英特한王子十五名을太子로封해서王權繼承에順次를定했으며建國初부터國基를튼튼히하시었다

妃神惠王后貞州柳氏三重大臣天弓女 附葬顯陵

莊和王后羅州吳氏多憐君女

神明王太后忠州劉氏贈太師內史令兢達女○生樂浪公主新羅王金傳來降太祖妻

以公主號神鸞公主○女李金書慶州人爲三韓功臣益齋齋賢遠祖○生興芳公主

神靜王太后黃州皇甫氏太尉三重大臣忠義公悌恭女

神成王太后金氏新羅臣千億廉女葬貞陵

貞德王后貞州柳氏侍中德英女

東陽王后平州庾氏 太師三重大臣默弼女 生二太子○光宗朝光宗子諱伯 病

弱故諸臣謀議擁立孝隱太子事發覺光宗賜死孝隱太子及謀議諸臣并賜死後以

孝隱太子改稱東陽君 東陽王后亦稱東陽院夫人 舊忠原譜所記考證記錄

獻穆大夫人慶州平氏佐尹俊女

貞穆夫人溟州王氏三韓功臣太師三重大臣景女

肅穆夫人史失其姓鎮州人大匡名必女

天安府院夫人慶州林氏太守彥之女

興福院夫人洪州洪氏三重大臣規女○生公主

後大良院夫人陝州李氏大匡元女

太溟州院夫人溟州王氏內史令又女

廣州院夫人廣州王氏大匡規之女

小廣州院夫人廣州王氏亦規女